

‘마한사복원’ 국정과제 채택...나주시, 세부 밑그림 그린다

선도정책과제 ‘마한사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마한사복원·역사문화도시 지정 목표 13개 발굴도

나주시가 차기 대선 국정과제에 ‘마한사 복원’ 프로젝트 반영을 위해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마한사 복원’은 나주시가 역적 추진하는 5대 선도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오는 6월10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역사적 가치와 당위성, 체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나주시는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5개 선도정책과제 민관공동위원회 ‘제2차 마한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마한사 복원’ 정책과제는 그동안 신라, 백제, 가야문화권과 비교해 소외됐던 영산강유역 고대 마한의 역사·문화자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나주를 비롯한 호

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와 마한 역사문화권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한사 복원을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2차 회의는 오는 6월10일 시행되는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인 도내 11개 지자체 등과 광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해 마한사 복원의 차기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한사위원회는 이날 회의 안건으

로 ‘마한사 복원·역사문화도시 지정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발굴한 13개 과제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나주시는 현재 ‘나주마한역사문화조사연구·정비계획’, ‘마한문화유적 국가사적 지정’, ‘영산강유역 마한유적 정밀지표조사’ 등 5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마한역사문화센터(가칭) 건립 기본계획·타당성 연구’ 등 나머지 7개 과제는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수립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2022~2026) 기본계획에 나주시 마한사 복원·정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타당성, 실효성 확보 등 사전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조사 촉진을 위한 핵심거점시설인 ‘국립마한역사문

화권센터(가칭) 건립과 나주읍성(금남동)과 마한국읍(반남·다시면)을 연계한 ‘역사문화도시 지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승철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단 조사연구실장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를 주제로 가야사의 2017년 대선 국정과제 채택 과정과 지원 방안, 문화재청·경상남도 가야사 복원 추진 계획, 가야유적 발굴 현황 등을 소개해 주목 받았다.

박중환(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원) 마한사 공동위원장은 “나주는 고대 한반도 역사의 큰 줄기인 마한 문화의 흔적이 대규모로 남아있는 곳”이라며 “대형 고분에서 출토된 독자적인 유적·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국제적인 관광지이자 역사·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일 전남 나주시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마한사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이날 회의에는 민관공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강인규 나주시장과 마한사공동위원장인 임영진 마한연구원장, 박중환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원, 이성주 경북대 인문대학장, 이정호 나주북암리고분전시관장,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청사 정문,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황룡’ 조형물에 미디어 파사드 공법 도입...‘엘로우시티 장성’ 표현

장성군 청사 정문이 ‘엘로우시티 장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났다. 미디어 파사드 공법을 도입한 ‘도심 속의 공공예술 작품’으로, 기능성과 안전성도 확보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인 ‘미디어(media)’와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가 결합된 용어다. LED 패널을 벽에 부착해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벽면 자체에서 영상을 투사한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화면(面)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미디어 아트’ 작품 같은 도시경관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새롭게 조성된 청사 정문은 길이 29m, 높이 7.7m, 최대 너비 5.4m로, 황룡강에 숨어 사는 황룡 ‘가운’의 전설에서 착안해, 황룡의 두상을 곡선 형태로 표현했다. 색감과 디자인 적용 시에는 주변 생활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했다.

미디어 파사드 공법이 적용된 전면부에서는 장성의 사계절과 관광명소,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을 담은 영상이 송출된다. 또 날씨, 미세먼지 등 다양한 생활정보도 제공된다. 조형물의 이름은 엘로우시티 장성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골든게이트’라 명명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 도립사 계곡, 주민 품으로

도립사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곡성군이 도립사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도립사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곡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하지만 주변 상가에서 수십 년 동안 평상, 천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계곡의 아

름다움을 저해했다. 관광객과 주민들도 계곡 이용에 불편함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곡성군도 오래 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민선 7기 들어 곡성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군은 2년여 간 상인들을 만나 이해

와 설득을 진행했다. 주민과 상인 모두를 배려한 곡성군의 태도와 긴 대화를 이어간 노력은 결국 상인들을 움직였고,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곡성군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도립사 계곡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로 했다. 도립사 계곡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함으로써 인근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도립사 계곡을 점령했던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곡 주변 3개 업소에서 하천 구

역에 무단으로 점유한 평상 80여개, 구조물 2개, 방갈로 1개 등 불법 시설물이 드디어 철거된 것이다.

곡성군은 도립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일단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립사 주차장과 연계해 계곡 주변에 데크로드와 계단 등을 설치한다. 또한 계곡을 더욱 청정하게 복원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이다.

곡성=양혜영 기자

구례 생명체험학교, 수해복구 사업 추진

구례군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생명체험학교의 원상복구와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군은 청정자연과 장수 복지 고장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2008년 구례생명체험학교 설치를 추진하면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구례군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구례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건물을 신축했다.

2019년부터는 대한노인회 구례군

지회 사무실이 입주하여 노인대학, 실버음악단 등 구례군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핵심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건물 전체가 침수되어 약 8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례군은 생명체험학교 건물에 대하여 앞으로 재난·재해사고 방지와 함께 쾌적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관련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본격 추진

화순지학(和順之學) 향교’ 운영

화순군이 ‘2021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선정돼 ‘화순지학(和順之學) 향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화순군이 후원하고 화순향교(전교 배남철)와 (사)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주관해 진행 중이다.

화순향교를 배경으로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인 유생체험 프로그램과 화순의 인물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문학 강의

가 열린다.

▲유생의 후예(유생체험) ▲나는 선비로소이다(화순 인물 열전 인문학 강의) ▲슬기로운 향교생활(문화강좌) ▲걸어서 화순 속으로(1박 2일 답사) ▲시월의 만화향연(마을잔치)의 5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운영할 방침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